

수능+평가원 영문법 기출史

남조우 편저



深深解 수능 영문법 기출史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잘 고쳐진 것을 고르시오. (1994-1차)

My brother became ill yesterday. I paid little attention to him and did not send him to hospital, because his illness did not seem to be serious. Now his condition is changing for the worse. I regret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to him. In other words, I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to him.

- ① had better pay little attention
- ②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 ③ had rather pay little attention
- ④ should like to pay little attention
- ⑤ 고칠 필요 없음

[전문해석]

내 동생이 어제 아팠다. 그의 병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고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제 동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그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정답] ②

[深深解]

"should have +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②번처럼 고쳐야 한다.

6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019학년도 9월)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so starvation is a kind of disvalue often found in nature. It also is part of the process of selection ①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Starvation helps filter out those less fit to survive, those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② themselves and their young.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 ③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 and eventually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Thus starvation is a disvalue that can help make ④ possible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 Starvation can be of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 ⑤ What some organisms must starve in nature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 even though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

*implacably 확고히 **subserve 공헌하다

[정답] ⑤

[전문해석]

모든 유기체가 생존에 충분한 먹이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기아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반(反)가치이다. 그것은 또한 생물학적 진화가 기능하게 되는 선택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아는 살아남기에 덜 적합한 것들, 즉 자신과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먹이를 찾는 것에 수완이 모자라는 것들을 걸러 내는데 도움을 준다. 몇몇 상황에서 기아는 유전적 변종들이 종의 개체군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결국에는 이전의 종을 대신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하도록 해 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아는 더 큰 다양성이라는 선(善)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반가치이다. 기아는 내재적 반가치인 동시에 유용한, 즉 도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일부 유기체들이 자연에서 기아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기아가 때로 좋은 목적에 공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확고히 진실이다.

[深深解]

- ⑤ is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 명사절을 써야 하는데 뒤에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되어야 한다. What이 쓰이면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와야 한다.
- ①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the process of selection이다. function이 자동사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이어졌으므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필요하다. by which는 결국 function에 연결되어 function by the process of selection(선택의 과정에 의해 기능하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② those less resourceful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는 올바른 표현이다.
- ③ to take hold ~는 앞선 의미상의 주어 for genetic variants와 함께 그 앞의 명사 the way을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적절하게 쓰였다.
- ④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는 동사 make의 목적어이며 possible이 목적격 보어이다. 목적어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도치된 형태이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6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020학년도 6월)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① appealing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For example,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at catches our interest and ② decide we like it.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we hear a lyric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 or we might notice ③ what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A special harmony ④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We hear more and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Sometimes, the longer ⑤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the more fond of that thing – whether it's music, art, dance, or architecture – we become.

*subtleties: 중요한 세부 요소[사항]들

[정답] ⑤

[전문해석]

인간 심리의 흥미로운 일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분명하지는 않은 경우에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에 있어서 분명히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라디오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노래를 처음 듣고, 그 노래가 마음에 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한 가사를 듣거나, 배경에서 피아노나 드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다. 우리가 전에 놓쳤던 특별한 화음이 나타난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매번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때때로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것의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모두 드러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춤이든, 또는 건축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深深解]

- ⑤ '~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의 「it takes 시간 for ~ to do」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표현인 long이 앞으로 나가 「the 비교급, the 비교급」의 일부를 이룬 것이므로 that을 it으로 바꿔야 한다.
- ① 「find+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appealing은 적절하다.
- ② decide we like it은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at catches our interest와 and로 연결되어 might에 이어지므로, 동사원형 decide는 적절하다.
- ③ what은 notice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A special harmony를 주어로 하는 동사 emerges는 적절하다. 뒤에 이어지는 that we missed before는 A special harmon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6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020학년도 9월)

To begin with a psychological reason, the knowledge of another’s personal affairs can tempt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① to repeat it as gossip because as unrevealed information it remains socially inactive.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can its possessor ②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into something socially valuable like social recognition, prestige, and notoriety.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③ himself, he may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it. But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that, so to say,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 fully ④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This is the main motive for gossiping about well-known figures and superiors.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 as ⑤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will rub off on him.

*prestige: 명성 **notoriety: 악명 ***latently: 잠재적으로

[정답] ④

[전문해석]

심리적인 이유부터 시작하자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뒷공론으로 반복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숨겨진 정보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비활동적인 상태로 남기 때문이다. 그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그 정보가 반복될 때만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 인지, 명성 그리고 악명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동안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그 비밀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 있다’가 폭로의 순간에만 완전히 실현되는 우월감이라는 그 기분을 그에게 주지 못한다. 이것이 잘 알려진 인물과 우월한 사람에 대해 뒷공론을 하는 주요 동기이다. 뒷공론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자신이 그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그 뒷공론 대상의 ‘명성’ 일부가 자신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深深解]

- ④ that feeling of superiority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관계절의 동사가 나와야 할 자리이므로, actualizing을 actualizes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tempt + 목적어 + to부정사’는 ‘~가 ...하도록 부추기다’라는 뜻이다.
- ② Only when ~ repeated가 문두로 나가면서 조동사 can과 주어 its possessor가 도치된 구조이므로, can에 이어지는 동사원형 turn은 어법상 적절하다.
- ③ keep ~ to oneself는 ‘~을 남에게 말하지 않다[비밀로 간직하다]’라는 뜻이다. 주어인 he와 그 대상이 같으므로 himself를 쓰는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 ⑤ the subject of gossip을 선행사로 하여, 관계절 속의 “friend”를 수식하며 관계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어법상 적절하다.

6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021학년도 6월)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tend to be motivated to maintain self-focused agency or control ① as these serve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With this form of agency comes the belief that individual successes ②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and thus,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or trying to accept one's circumstances, the use of control ultimately centers on the individual. The independent self may be more ③ driven to cope by appealing to a sense of agency or control. However,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s tend to be less focused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 and more motivated towards group goals and harmony. Research has shown ④ that East Asians prefer to receive, but not seek,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Therefore, people ⑤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may prefer to cope in a way that promotes harmony in relationships.

*self-construal: 자기 구성

[정답] ②

[전문해석]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 환경의 출신자들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주체성이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자아 존중감의 토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의 결과로 개인의 성공이 주로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생기며,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침에 의해서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함에 의해서든, 통제력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집중된다. 독립적 자기는 주체 의식이나 통제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대처하도록 더 많이 유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상호의존적인 문화 환경의 출신자들은 개인의 성공과 주체성의 문제에 덜 집중하며, 집단의 목표와 화합 쪽으로 더 많은 동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동아시아인들은 어떤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지는 않되, 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더 상호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지닌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화합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深深解]

- ② the belief를 설명하는 that이 이끄는 동격절에서 주어인 individual successes 다음에 술어 동사가 이어져야 하므로 depending을 depend로 고쳐야 한다,
- 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as는 어법에 맞다.
- ③ 주어인 The individual self가 유도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되도록 과거분사인 driven을 쓰는 것이 어법에 맞다.
- ④ has show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that은 어법에 맞다.
- ⑤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who는 어법에 맞다.

6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021학년도 9월)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① which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The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 ② is an asset that some competitions and contests offer. In a sense, all competitions give feedback. For many, this is restricted to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participant is an award- or prizewinner.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can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③ necessarily excellence. The best competitions promote excellence, not just winning or “beating” others. The emphasis on superiority is what we typically see as ④ fostering a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 Performance feedback requires that the program go beyond the “win, place, or show” level of feedback. Information about performance can be very helpful, not only to the participant who does not win or place but also to those who ⑤ do.

*foster: 조장하다 **detrimental: 유해한

[정답] ①

[전문해석]

경쟁을 벌이는 활동은 최고는 인정받고 나머지는 무시되는, 단지 수행 기량을 보여주는 공개 행사 그 이상일 수 있다. 참가자에게 수행 기량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대회와 경연이 제공하는 자산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대회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참가자가 상을 받는지에 관한 정보에 제한된다. 그런 유형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탁월함은 아닌, 우월한 수행 기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조점을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고의 대회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탁월함을 장려한다. 우월성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해한 경쟁 효과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수행 기량에 대한 피드백은 프로그램이 '이기거나, 입상하거나, 또는 보여주는' 수준의 피드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수행 기량에 관한 정보는 이기지 못하거나 입상하지 못하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기거나 입상하는 참가자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深深解]

- ① 뒤에 완전한 형태의 수동태 문장이 이어지므로 performance showcas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한다.
- ② 주어가 The provision이므로, 단수 형태의 동사 is는 적절하다.
- ③ 문맥상 not necessarily와 excellence 사이에 동명사 demonstrating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cellence는 동명사의 목적어로 demonstrating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사 necessarily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④ as는 전치사로 쓰였으며,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foster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⑤ 앞의 win or place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do의 쓰임은 적절하다.